



조계종은 9월 17일 조계사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 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차대회에서 조계종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이 같은 연대의 첫 걸음으로 12개 사찰은 12개 관련 단체와 후원 결연을 맺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대회 참가 스님들이 초청 시민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삼화사 국행수륙재 보존위원회가 가난과 장애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을 위한 위령재를 진행하고 있다.

“‘十匙一飯’ 가르침 통해 빈곤문제 해결”

〈십시일반〉

조계종, 9월 17일 조계사에서 빈곤문제 해결 위한 무차대회

한국은 고도성장사회다.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사회소외계층으로 대변되는 그림자도 분명 존재한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인 '사회임금'은 가처분 소득의 12.9%로 OECD 평균인 40.7%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러나 사회계층 복지정책이라고 시행하고 있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는 오히려 빈곤과 낙인의 사슬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사회의 그늘진 곳에 시름하고 있는 빈곤층과 장애인, 홀리스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 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와 빈곤사회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무차대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단체 회원, 쪽방주민, 홀리스야학 학생, 빈곤층 어르신, 거리노숙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의 시작은 가난으로 세상을 등진 사람과 장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제가 알렸다. 삼화사 국행수륙재 보존위원회가 진행한 위령제를 통해 대중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장애인과 빈곤층의 명복을 빌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현 시대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높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양산되는 양극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소외 복지 사각지대라

고 불리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극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불자들은 매일 '중생무번서원도'를 서원하고 있다. 부처님도 '여럿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이든 '하나가 여럿을 쳐다보기'가 어려워 모두가 십시일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오늘 무차대회의 깊은 뜻이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적지 않은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에 대한 성토와 빈곤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강동진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정책위원은 "한국사회 빈곤실태와 빈곤해소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투기 규제·재벌 개혁 등 실질적 재분배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이야기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제 때문에 빈곤층인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400만 명에 달한다"면서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이뤄졌다. 김성태 노년 유니온 위원장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퇴직하면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서원문과 발원문을 대표로 발표한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대표와 기획실장 일감 스님. 스님은 단상까지 박 대표의 휠체어를 끌었다.

장애인·홀리스 등 300여 명 참여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주장
“빈곤과 낙인의 사슬을 끊어달라”

자승 스님 등 배식봉사... 情 나눠
12개 사찰·단체 결연맺고 지원 약속
‘사회정의실천불교위원회’ 구성 모색

“보편적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조성래 노숙인공동생활터 살림집장은 빈곤의 사슬로 천륜까지 저버리게 하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했다. 조 집장은 “건강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50대 가장은 이혼한 아내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의 교육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면서 “허울만 있는 복지제도인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불교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인과 가난한 시민들의 서원과 불교계의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발원문이 각각 발표됐다.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대표는 서원문을 통해 빈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빈민·장애인 문제 해결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부터 시작된다”면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원조로 이뤄지지 않는다. 장기적인 계획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호소에 조계종 무차대회 참가대중은 꾸준한 관심을 다졌다.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한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우리 불교인들은 그동안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 다소 부족했던 점을 금번 무차대회를 계기로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대와 빈곤해소·인권 정의를 위한 ‘사회정의실천불교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연대의 첫 걸음은 빈곤 등 사회 소외계층단체와 사찰의 후원 결연이었다. 이날 무차대회에서 금정사, 봉인사, 대관음사, 흥천사, 장경사, 자재암,

마하사, 대성사, 대원정사, 봉림사 등 12개 사찰은 홀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노들야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에 대해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 형식으로 2년 후원을 약속했다.

결연식 후에는 이날 참석자들이 각자의 소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이뤄졌다.

대회는 훈훈한 정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총무부장 정만 스님 등 대회 참가 스님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초청 시민들을 위한 배식 봉사가 나섰다. 배식 이후에는 스님과 초청 시민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초청 시민들은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준호(72) 씨는 “오랜만에 사찰에 와서 맛있는 공양까지 할 수 있으니 기분이 좋다. 스님들도 매우 친절하시다.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39,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는 “사찰에 온 것이 처음이다.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오늘 서원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연을 진행한 강동진 위원은 “빈곤문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는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수순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는 불교계 내부적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사”고 평가했다.

글=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만민·아름·소통
세상보다 더 큰 장터
www.seungsi.com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World Water

팔공산 승이 축제

2014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2014. 10. 1 (수) ▶ 10. 6 (월)

전야제 : 10월 1일

대구 팔공산 씨네80 자동차극장, 동화사 일원

개막식 : 10월 2일 오후 5시

승시국화축제

2014. 10. 1 (수) ▶ 11. 14 (금)

팔공총림 동화사 약사대불 일원

박민연준

김미미

박운단

축제기간동안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대구광역시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 주관 | 팔공산 승시축제 봉행위원회·대구불교종단협의회·대구불교총연합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53) 986-9575